

나주에 햇빛이 소득 되는 협동조합마을 만든다

시, 동강 월양1리·남평 오계2리 등 행안부 공모 2곳 선정 태양광 발전 수익 마을 공동체 환원...햇빛소득 기반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공모에 신청한 2개 마을이 모두 선정되면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서게 됐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햇빛

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공모에서 신청한 2개 마을이 모두 선정돼 행안부 공모 선정으로 민선 9기 윤병태 시장의 ‘나주형 햇빛소득마을 200곳 조성’ 공약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

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동강면 월양1리와 남평읍 오계2리가 선정됐다.

동강면 월양1리는 저수지를 활용한 725kW 규모의 수상형 태양광 발전시설, 남평읍 오계2리는 1000kW 규모의 육상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전남

광주에서는 30개 마을이 신청해 19개 마을이 선정됐다.

시는 공모 준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와 사업 컨설팅,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써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나주시는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

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준비하는 결실을 본 뜻깊은 성과다”며 “햇빛이

주민의 소득이 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햇빛소득도시 나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7월 햇빛소득마을 TF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왕우렁이 수거...피해 예방 선제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최근 군동면에서 생태계 교란 예방과 친환경 농업 보호를 위해 ‘왕우렁이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수거 기간에는 농경지는 농기가, 배수로는 군동면사무소 직원들이 맡아 왕우렁이 수거와 방제 활동을 추진했다.

화순, 폭염·가뭄 선제 대응...용수 확보 ‘총력’

관정·하천수 활용 등 농업용수 공급 차질 방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 부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저수지와 관정을 사전 점검하고 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은 농업용 저수지 117개소 가운데 저수율이 30% 미만인 저수지 16개소

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정과 하천수를 활용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농업용 관정 55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보수가 필요한 5개소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리 양수장비 355개에 대해서도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수리해 비상 상황에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박종욱 건설교통실장은 “현재까지는 선제적인 용수 확보와 시설 점검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수율과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뭄 장기화에도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광양 매실 스파클링 와인, 해외시장 공략

‘섬진강의별’ 독일·미국 첫 수출...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물 제조업체 ㈜섬진강의별이 개발한 광양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별’이 독일과 미국에 첫 수출을 확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시티플러스 면세점에도 입점하며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따르면 ‘섬진강의별’은 광양의 대표 농산물인 매실을 주원료로 만든 세계 최초의 정통 매실 스파클링 와인이다. 광양산 매실과 돌배를 주원료로 사용해 약 10개월 동안 샤르마트(Charmat) 공법으로 발효·숙성했으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자연 탄산으로 섬세한 기포를 구현하고 풍부한 향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말부터 독일과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는 1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섬진강의별은 지난해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표 제품인 ‘섬진강바람’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주가 해외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jin@gwangnam.co.kr



함평자동차극장, 9월부터 잠정 휴관

누적 적자·부지 공사...다목적 공간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한 함평자동차극장을 오는 31일 상영을 끝으로 잠정 휴관하기로 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자동차극장은 민선 7기 당시 군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2021년 1월 문을 연 이후 차량 안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의 이색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군민과 관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던 군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를 제공했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영화산업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OTT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영화 관람 방식도 변화했다. 이에 따라 함평자동차극장을 찾는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 운영비용은 꾸준히

발생하면서 재정 부담도 커졌다.

여기에 9월 함평을 내교리와 기각리 일원에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착수, 사업 구역에 함평자동차극장 2개 상영관 중 나비관 부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기간 동안 나비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1개 상영관인 황금박쥐관을 단일 상영관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영화 배급사에서 요구하는 상영 조건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영화 배급과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군은 이같은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극장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운영한 뒤 9월 1일부터 잠정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자동차극장을 황금박쥐관 중심으로 다목적 문화공간과 축제·행사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여수 국동항 주차난 해소 속도도로 중복결정 행정절차 돌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국동항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절차는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협의와 지역 납시협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동항은 여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 결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중주차 등 근본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 지역 납시협회 간담회에서는 납시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조기 개방한 임시주차장(국동 112번지)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 만큼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동항의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시민과 어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국가어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김한중 군수가 민선 9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장성, ‘군민과의 약속’ 정책으로 설계한다

민선 9기 공약 검토보고회...8개 분야 54건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계획과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공약 이행 준비에 나섰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청사 상황실에서 김한중 장성군수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부군수와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공약 추진 가능성, 연도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등을 심층 분석·논의했다.

민선9기 장성군의 군정비전은 ‘미래로

도약하는 더 큰 성장장성’이다. 공약은 △지역개발 △교육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경제 △생활환경 △일반행정 8개 분야로 구성됐다.

군은 이날 총 92건의 공약 가운데 54건을 1차 검토안으로 확정했다.

주요 공약에는 ‘예산 1조원 시대’ 개막과 민생안정지원금 연차적 지급, 인구 10만 명 자족도시 달성,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 평생학습관 건립, 황룡~임곡 광역도로 확포장, 임기 내 농어촌기초소득 지

급,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유치, AI 종자원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군은 이번 1차 검토보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부서별 공약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이달 중 2차 보고회를 열어 세부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9월에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설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